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十一)

申南澈

이제 韓氏의 該論文을 보건대 그것의 發足이 突發的의 것이었든 아니었든 『生存』의 was를 批判하러 드것다. 그리하여 『實在探求』의 was를 『航行』함으로 因하여 『現代生存의 立脚地』를 세워보려고 하였다. 나는 그러한 限에 잇서 그의 企圖한 바의 形式的 外觀은 認定한다. 그러나 그것은 『最後의 陣營』으로 『하나님의 聖殿』을 차젓고 더구나 그것의 內包에 잇서 上述한 바와 가티 哲學의 俗流化 以外에는 何等의 所得도 □來하게 못하였다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言 할 必要는 업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以上에 나는 was와의 關係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was를 一種의 超越的 存在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超越性은 어찌케하여 解釋될 것인가에 對하여는 다시 여러 方面으로부터 理解하여 볼 수 잇고 粹러서 그것의 現實的 意義도 把持 할 수 잇슬 줄 밋는 바이나 지금의 問題가 아님으로 이곳에서 생각하여 보는 것은 고만두려고 한다. 이 was와 wie의 說明方式도 體系와 方法, 對象과 原理, 內容과 形式, 『노에마』와 『노에시스』 등의 數 만흔 二元的 考察方法과 가티 그 長點과 同時에 難點을 具有 할 것이다. 思考와 存在와의 關係에 對하여 쏘는 經驗과 經驗의 對象에 對하여 한 개의 X를 남기고 잇는 것이다. 이 『X』에 對한 考案은 後日의 나의 課題이다.

이 亂雜한 小稿를 窸마치고 나니 炎熱의 『력업』에서 苦生하는 □人의 동무의 鬱憤이 나의 was에 對한 wie를 다시 업시 激動케 함을 甯기겟다! 나의 머리는 熱情에 불타는 思辯이다! 아니 思辯에 불타는 熱情인가? (八月 八日)